



건강문제 해결에 공동 참여의식 갖도록 해야

보건교육기반 구축 위한 워크·숍 개최

“보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남 유성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올바르고 일관성 있는 보건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보건교육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건강관리협회와 대한보건협회가 주최하고 보건사회부가 주관했다.

한편 김정수 보건사회부장관은 윤성태 차관이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 현대의 질병과 건강 문제는 의료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평소 개인의 건전한 생활습관 유지와 건강생활 실천을 보급하는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교육의 목표는 국민 각개인이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 보호 주장과 함께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내 이웃의 건강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공동참여 의식을 절실히 갖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관계 인사 및 시도 보건과장 등 20여명이 참석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각 분과별 토의를 통해 ▲보건교육 자료의 개발·운영·관리를 위한 특수 기구의 설치, ▲현 보건요원 및 공무원 연수과정 시 건강교육 과목 개설, ▲대중적 홍보자료 개발, ▲학교보건사업을 위한 행정 조직의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기조연설 : 2천년대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추진 방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권이혁 회장)

－ 제1주제 :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추진 전략(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시백 교수)

－ 제2주제 : 보건교육자료의 체계적 개발과 효율적 활용 방안(한양대 사범대 권성호 교수)

－ 제3주제 : 국민건강의식 제고를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과 사회기관·단체 등 조직의 보건교육 홍보 참여 방안(연세대 사회과학대 김영석 교수)

－ 제4주제 : 각급 학교의 정규 교육을 통한 보건교육 강화(이화여대 체육대학 김명 교수)

－ 보건교육사례발표(경기 제11지구 의보조합 조동인 대표이사)



생애검진체계 실현위해 노력하자

건협, 창립 26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



▲ 지난 11월 6일의 창립 기념식에서 있었던 우수직원 표창

健協은 창립 26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6일 기념식을 갖고, 창립 이념을 기렸다.

한편 11월 6일에 있었던 기념식에서 서병설 회장은『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기생충관리, 건강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온 전 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면서,『우수한 인력과 전국적인 조직, 그간의 사업경륜을 바탕으로 Life Health Monitoring System(생애검진체계)을 실현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자 및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시상도 있었다.

◎20년 장기 근속자 표창

▲정순표(본부 기획부장), ▲박명성(대구지부 검사소장), ▲안석록(강원지부

차장 직무대리).

◎10년 장기 근속자 표창

▲윤기옥(본부 기획주임), ▲김창란(서울지부 근무), ▲김성태(부산지부 검사소장), ▲이동춘(대구지부 3급병리사), ▲오근택(충북지부 근무), ▲정순덕(대전·충남지부 3급병리사), ▲김종수(대전·충남지부 근무), ▲이정일(광주·전남지부 홍보과장 직무대리), ▲조재현(광주·전남지부 검사소장), ▲현기봉(경북지부 서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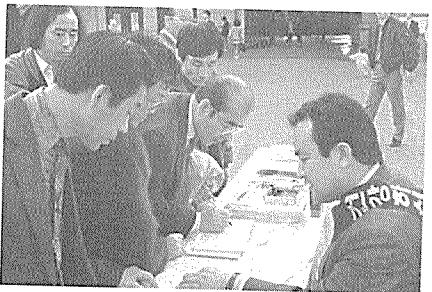
◎우수직원 표창

▲마희연(본부 홍보과장), ▲서영준(본부 사업계장), ▲백승현(본부 조사연구부 주임), ▲김승오(본부 총무부 서기), ▲최성현(서울지부 근무), ▲정남호(부산지부 사업계장), ▲차양근(대구지부 근무), ▲김기성(인천지부 4급병리사), ▲이인호(경기지부 사업과 주임), ▲신동구(강원지부 사업과 주임), ▲김성순(충북지부 4급병리사), ▲박경춘(대전·충남지부 3급 병리사), ▲나은숙(전북지부 서무과 주임), ▲강미경(광주·전남지부 3급간호사), ▲이제철(경북지부 3급병리사), ▲김기진(제주지부 4급병리사).



무료 당뇨병 검사, 많은 호응 받아

건협 서울지부 가두 무료 당뇨 혈액형 검사



▲ 가두 무료당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협 서울지부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무료 당뇨병
검사 및 혈액형 찾아주기 사업을 지난
11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다.

협회 창립 26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

로 실시하게된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
와 세림복지재단이 후원했다. 실시된 장
소는 서울역 광장, 롯데백화점 앞, 강동
의원 등 3곳이다.

당뇨병의 조기발견과 잠재성 당뇨인
을 찾아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 사업에서는
당뇨병 3천6백36건, 혈액형 2천4백99건
을 검사하고 그중 214명의 당뇨병 유소
견자를 발견해내었다.

한편 이번 검사의 결과는 그 자리에
서 개인에게 직접 알려주고, 당뇨병 검
사결과는 세림복지재단에 통보해 당뇨
인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91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90. 제2차 정기이사회

健協은 199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지난 11월 24일 개최했다.

'90년도 사업 결산 및 '91년도 사업
계획 승인 등을 위해 실시된 이번 이사

회에서는, '90년도 사업추진 현황, 광
주·전남지부 특수 기생충 검사, 주요홍
보사업 추진 현황,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
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91년도 일반
회계 사업계획(안) 승인 및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보조금 사업계획 및 예
산 승인, 회원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사항이 안건으로 부의, 통과 되었다.

◎…健協 본부 직원들은, 새정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강서구 산하 유관기관과 협동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 참가

健協, 새정신·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전개

제공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본 협회에서는 매일 일정 시간

, 동안 거리에 나가 횡단보도의 교통정리, 버스정류장 질서 유지, 주차질서 계도, 택시 정류장 탑승·승차 거부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24시간 통보 체계」교육 실시

건협, 지난 24일 검사소장회의 개최

健協은 지난 11월 24일 검사소장 회의를 홍보관에서 개최하고, 24시간 내 검사결과 통보 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통보 체계의 효과·실시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예상 문제 및 대책 등에 교육과, 구체적 진행 과정이 논의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 통보 체계의 실시가 위탁 검사를 활성화시키고 신뢰도 향상 및 효율성 증대, 업무 간소

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91년도 예산·사업계획 확정 예정

‘90 정기대의원총회, 오는 12월 1일

健協은 ‘9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90년도 사업 실적 등에 대한 제반 보고와 함께 ‘91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대한 확정, 임원 중 임기가 만료된 감사에 대한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공개강좌 “간장질환의 치료와 관리”

12월 18일 오후 2시 홍보관서



▲ 지난 11월 20일 공개강좌에서는 “신장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중대부속 용산병원의 유석희 박사가 강의했다.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12월 건강관리공개강좌를 오는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 장소는 서울지부 홍보관.(화곡동 소재)

이번 강좌의 주제는 “간장질환의 치료와 관리”이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사망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간장질환의 발병 현황, 질환의 진행과정, 왜 예방 관리가 필요한지를 이번 강좌에서 다루게 된다.

한편 지난 11월 20일에 있었던 11월 강좌에서는 “신장질환의 치료와 관리”

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강사는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내과의 유석희 박사.

유박사는 이날 강좌를 통해 신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신체적 이상과 관련 질병 등을 설명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상 생활중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발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궁암 채취기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

일본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 방문

健協 원용복 사업부장 등 검사소직원 2명은, 자궁암 자기 채취기 검사 방법 및 기술 습득을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나고야 공중 의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자기 채취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 습득 및 보건 분야 상호 교류를 위한 실무자들 간에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원용복(본부 사업부장)

◎최기선(서울지부 3급병리사)

◎손은주(부산지부 4급병리사)